

영어교육 26호
1983년 8월

좋은 英語考查의 技術的考慮事項들

權 五 良
(忠南大學校)

I. 緒 論

어느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어교육에서 testing의 중요성은 그것이 크게는 이 나라의 외국어교육정책에, 작게는 개별 교사의 수업현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영어시험의 출제 및 채점잘못으로 빚어진 근간의 某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에 대한 우리 영어교사들의 관심은 별로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의 문장을 적당히 괄호넣기식으로 옮겨서 문제를 만들거나 간단한 단어의 뜻풀이나, 짧은 구문의 해석과 같은 문제들, 다시 말해 깊이 연구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주워모아서 testing을 하는 교사가 대다수이고, 이는 중학교 영어에서 대학의 英語까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교육학계에는 영어시험문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다만 田相範(1978)이 대학예비교사를 분석하면서 기술적으로 약점이 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다루었고, 金德起(1980)가 대학입시를 분석하면서 이에 관한 몇가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근자에 국내에서 나온 영어교수법 관계의 저서중에는 朴義載(1981), 申鎔鎭(1981) 등이 testing에 관해 몇가지 문제유형을 다루고 있으나 출제에 관한 技術的인 문제—여기서 技術的이라는 말은 *technical*이라는 의미로 쓰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좋은 영어교사의 출제를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제시하여 앞으로 이 방향의 연구에 한 보탬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영어의 “testing” 혹은 “test”에 대응한 우리말로는 “考查”와 “試驗”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함께 쓰게 됨을 밝혀

된다. 영어의 testing, evaluation, examination, measurement 등등과 우리말의 考查, 試驗, 考試, 評價, 測定 등이 각기 약간씩의 의미차이를 가지고 있겠으나, 여기서의 주된 관심은 문제작성에 있으므로, 영어의 testing 혹은 test 와 그에 대응한 말로 “考查”와 “試驗”을 구별없이 쓰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밝혀둘 것은 이 글에서는 영어의 네가지 기술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시험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실제 학교시험이나 기타시험의 주종을 이루는 필답고사에서 많이 다루는 문법, 단어, 구문, 독해력 등에 관한 시험을 주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듣기 시험이나 말하기 시험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선 위와 같이 필답고사로 현재 각급학교나 기타시험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제형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Testing 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에 Reliability, Validity, Practicality 가 있다. 그래서 다음장에서는 이들 원칙과 기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여 보기로 한다.

II. 一般原則들에 대한 검토

2.1. Reliability, Validity, Practicality.

흔히 좋은 testing 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Reliability(신뢰도), Validity(타당도), 그리고 Practicality(실용성)에 대하여 말하고는 있는데, 실제 출제하는 마당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로 출제자에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Reliability 의 문제를 들여보자.

Reliability 에는 test reliability, testee reliability, scorer(grader) reliability 등이 있는데 (Brown, 1980; Harris, 1969), 한 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어떤 시험을 같은 집단에게 두번 실시하였을 때 두번의 시험 결과가 같다면 Reliability 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test reliability 를 높이기 위해서 출제자는 어떤 출제를 해야 하는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출제자는 어떤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예비시험 (preliminary test)를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소위 “split-half” 방법등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여 높은 신용도의 고사를 만들 수 있겠으나, 그런 사전 준비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문항수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한시간(50분) 짜리의 영어시험이 수험자가 20분도 안되어 끝낼 정도로 짧은 시험이 실제로 많이 목격된다. 매일이나 혹은 매주정도 실시하는 간단한 quiz 라면 5문제나 10문제 정도라도 그 누계는 많

으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월례고사라면 25문항정도라도 그 누계는 신뢰도가 있다 하겠으나, 대학의 교양영어처럼 한 학기의 영어 성적이 두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경우나 기타 一回的인 考査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20내지 30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물론 문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객관식 시험이라면 50분시험에 적게는 50문항, 많게는 100문항정도까지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¹⁾ (물론 문항수가 많아지면 채점의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므로 Practicality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일 수도 있으나 객관적문제일 때는, 출제방식에 따라서는 간편한 채점방식도 있으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형태를 주관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객관식으로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문항수를 많게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scorer reliability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한다. 채점자의 주관에 의해 점수를 주는 문제에 비하면 주관적 판단이 필요없는 객관식 문제가 채점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객관식이 주관식 보다 Validity가 높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었으나, test 하는 내용이나 출제방식을 잘 연구한다면 객관식문제로도 주관식시험에 가까운 Validity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Validity(타당도)의 문제가 있다. Validity에도 face validity,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empirical validity 등의 구별이 있으나, 여기서는 Validity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즉 “그 시험이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정확히 측정하는가?” (Harris, 1969; Heaton, 1975; Brown, 1980)라는 것과 출제자를 결부시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출제자(특히 일선교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위 “英語考査”가 단지 단어시험, 전치사시험, 혹은 번역시험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문항짜리 영어시험에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10개, 전치사 채워 넣기 문제가 10개, 단문번역이 10개가 나왔을 때 이 시험이 과연 수험자의 「영어능력」을 평가 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영어능력이라면 영어의 네 가지 기술——듣기 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능력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상 듣기와 말하기는 측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읽기와 쓰기의 능력만 본다면 위와 같은 30개의 문제만으로 수험자의 영어실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필답고사의 출제자라 해도 validity를 생각한다면 가능한한 여러 분야의 영어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단 두개의 영어 paragraph를 국역한 답안에 의해 한 학

1) 만약 시험의 성격이 speed test가 아니고 power test 라면 문항수가 적은 대신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문항수가 많은 것이 좋다고 본다.

기의 영어실력(국역실력이 아니라)이 평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형태의 영어시험이 대학교양영어에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영어시험은 “영어의 능력 혹은 지식”을 시험해야지 “영어에 관한 지식” 즉 문법규칙자체에 관한 지식을 시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Heaton, 1975: 195). 사실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영어에 관한 지식(문법규칙과 용어)을 가르치는 시간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적지 않고 보면 英語考査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다.

Reliability 나 Validity 에 비해 Practicality(실용성)의 문제는 출제자가 대개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출제 및 시험실시에 따르는 경제적인 여건(문제지 인쇄비, 시험시행 및 채점상의 경비따위), 시간적인 제약, 시험실시와 감독, 채점에 필요한 노동력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면 문제지를 몇장(몇 페이지)으로 인쇄할 것이며(인쇄경비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항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채점의 노동력문제이다) 등의 문제일 것이다. 하기는 문항수가 페이지를 결정하겠으나, 앞에서 말했듯이 문항수를 좀 늘이더라도 인쇄요령에 따라서는 응통성의 폭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답안지의 란을 작게 줄인다면 8절지 2면으로도 40~50문항까지는 typing 할 수 있다.)

2.2. Pretest 와 Main Test.

Harris(1969, 1972)는 testing 에 있어 pretesting²⁾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 pretesting 은 출제자가 main test 를 하기 전에 일차로 main test 의 수험자 집단과 비슷한 집단에 test 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결과를 분석하여서 각 문항의 신뢰도, 난이도등을 검토하고 또 문제의 direction (지시문)도 잘못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이 pretesting 의 결과 아주 나쁜 문항은 빼버리고 적합한 문항들을 main test 에 사용함으로써 考査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TOEFL 같은 소위 standardized test 는 모두 이 pretesting 을 하고 있는데(필자도 미국에 있을 때 이 TOEFL pretest 의 subject 로 시험을 본 적이 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이 pretesting 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이해이다.

2) Harris 는 여기서 *Pretest* 를 main test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썼는데, Valette(1977: 14)는 *Posttest* 의 대응개념으로 *Pretest* 를 써서 하나의 학습과정의 시작전에 시험을 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pretesting을 할 방법은 무엇일까? 한 학교안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pretest와 main test를 한 수가 없으므로 다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이웃에 있는 학교중에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중학교의 경우는 단일 교재이다.)와 상호 협조하여 한학급씩 서로 선발하여 (학생들에게는 출처를 밝히지 말고) 위탁받은 pretest를 실시하여 상대편 학교에 답안지를 돌려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main test의 집단과 비슷한 집단을 sample로 하여 pretest를 하므로 그 결과분석은 有意的인 것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금년도의 main test를 내년도의 pretest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단 같은 교재를 내년도에 쓰다는 전제아래.) 금년에 main test 후 한 학급을 sampling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문항들은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 main test의 시행시 문제지까지 회수하여 보안 유지를 할때에만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으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 더구나 같은 교재를 4~5년 계속 사용할 경우, 누적된 pretest가 많으므로 차츰 좋은 문항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3. Subjective Test와 Objective Test.

현장의 교사나 일반 출제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으로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의 구별이 있다.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의 구별은 답의 모양이나 길이에 관계 없이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Heaton, 1975 : 11). 다른 말로 한다면 가능한 정답의 수효가 여러개라 할지라도 그 수효가 有限하고 객관적인 준거로 채점할 수 있으면 객관식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Heaton(1975 : 13)은 multiple-choice items와 true-false items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들도 objective test의 예로 든다.

(1) Transformation.

John Brown is a very fast runner.

John Brown is...

(2) Completion.

The time is now half...ten.

(3) Combination.

Ann did her homework. Then she went swimming.(After)

(4) Addition (Grammar).

YET...Haven't you seen this film?

(5) Rearrangement.

at/poor/Look/that/woman/old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주관식 시험은 free composition (단지 한문장의 경우라도)이나 번역문제정도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문항은 실은 객관식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그 객관식 문제가 multiple-choice item이나 true-false item과 같이 recognition item이냐 위에 든 예들과 같이 production item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관식 문제는 출제는 쉬운데 채점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고, 반대로 객관식 문제는 채점은 쉬운데 출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위의 예에서 나온 Completion test 처럼 교재에서 그냥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별문제이지만.) 특히 multiple-choice의 경우는 有意的인 item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문항만들기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보겠다.

Ⅲ. 問項作成의 技術的考慮事項들

3.1. Test Organization.

Test organization에서는 問項數, 문항의 배치, 문제지의 구성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問項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중복은 피하고, 다만 문항들의 difficulty가 단계적으로 되어서 discrimination(변별도)이 잘 되도록 해야함을 지적하고 싶다. 보통의 집단으로 100명의 응시자가 100문항의 시험을 쳤을 때 90명이 95점 이상을 받는다는가 모두 20점미만을 받는 시험보다는, 1점에서 100점까지 한명씩 늘어 서도록 출제된 시험이 변별도가 높은 것은 자명하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문제중에는 전원 혹은 대다수가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쉬운 문제는 보통의 수험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한다. (여기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선택은 앞에서 언급한 pretesting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반드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례대로 배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처음의 한 두문제는 쉬운 문제를 줌으로써 수험자의 자신감을 북돋우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의 형태별로 조합하고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각급학교의 영어시험에서 관습적으로 출제하는 형태로, 첫 머리에 reading

passage 를 주고 Comprehension 문제부터 시작하는 배치방법은 고쳐볼 적도 하다.

다음으로는 문제지에다 배치할 때의 고려사항들이 있다. 대개 8절지에 타자를 친다면 (아직도 손으로 쓰는 학교나 기관이 없진 않겠지만) 좌우 2단으로 문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히 reading comprehension 문제의 경우 왼쪽 하단에 reading passage 가 나온 후 (혹은 반쯤 나온후) 오른쪽 상단에 그 passage 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multiple-choice item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왼쪽 하단에 choice item 이 일부 주어지고 나머지는 오른쪽 상단에 주어지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이와 같은 잘못이 앞페이지와 뒷페이지로 넘어 가는 도중에 생기면 더욱 곤란하다. 수험자가 일일이 앞페이지를 다시 넘겨봐 가면서 뒷페이지의 문제를 풀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Harris, 1969 : 109).

이와 비슷한 문제는 두장(2 pages)으로 칠해진 시험지에 별도 답란이 제 2면 끝에 마련 되어 있을 경우에도 생긴다. 이때 수험자에게 앞 뒷장을 분리해도 좋다는 지시가 없으면 수험자는 매번 앞면의 문제를 뒷면의 답란에 쓰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더 심한 경우는 종이를 아끼느라고 한장의 앞 뒷면에 인쇄된 시험지로서 뒷면에 답란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배치는 피해야 한다.

Harris(1969 : 109)는 또 separate cover sheet 를 사용하여 수험자가 시작전에 문제를 훑쳐보는 것을 막고, 그 cover sheet 에다 수험자의 name, class, the date 등을 쓰게 할 수 있다고 제의한다. 덧붙여 그는 이 cover sheet 에다 general information——즉 (1) 考查의 목적, (2) 답안지 기재요령, (3) 답안 정정 요령, (4) guessing 에 대한 벌점여부, (5) 재사용 문제지의 경우 문제지 위의 낙서금지 안내 등——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cover sheet 는 시험이 자주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경비문제도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1회적인 일반시험(입학·입사·승진시험 등)에는 꼭 필요하다.

3.2. Direction 쓰기

시험에 있어서 지시문 즉 directions (혹은 instructions, 혹은 rubrics)는 응시자의 행동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 외에도 문제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시문은 분명하고 자세하여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시문에는 앞절에서 언급된 Harris 의 general information 을 담고 있는 일

반지시문이 있고, 각 문제의 유형별로 주어지는 문제별 지시문이 있다. 일반 지시문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교현장의 정규고사에는 없어도 되겠으나 기타 시험에는 가능한 한 친절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 다음의 보기는 충남대학교 개교 31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충남대학교 언어 훈련원이 주최한 「제 1회 충청남도내 고등학생 영어청취 경시대회」에서 필자가 작성한 일반지시사항인데 앞에 나온 Harris의 guidelines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제 1회 충청남도내 고등학생 영어청취경시문제

I. 일반지시사항

이 시험은 고등학생의 영어청취력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모두 여섯개의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Part에 대한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각 Part에 대한 시험시간은 녹음테이프의 지시에 의해통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출신학교, 수험번호, 이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답안지 작성은 연필로 하여 주시고 틀린답을 지울때는 완전하게 지워주십시오. 만약 연필대신 볼펜이나 잉크를 사용한다면, 정답을 고칠 때 다음의 요령에 따라 하여 주십시오.

	A	B	C	D
보기 : 첫째, B를 정답으로 표시한다면 :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그후 정답을 D로 바꾼다면 :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그런데 그후 다시 B로 바꾼다면 :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답은 주어진 답지에만 표시하고 문제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마십시오. 문항수는 총 100문항이며 100점 만점이므로 각 문항의 비중은 1점으로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한 문항의 답을 잘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짐작하게 그 다음 문항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문항에 너무 오래 집착하여 그 이후의 문항까지 실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답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하나의 Part가 끝나면 녹음 테이프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 다음 Part를 넘겨서 미리 보아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의 지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Part A를 열어주십시오.

위의 지시문은 문제지의 제 1면을 모두 차지하도록 인쇄되었었다. 필자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일반 지시문을 주면 질문이 없으리라고 자신했었는데 막상 시험 당일에 응시자로부터, “연필로 답을 표시한 경우에도 지우는 대신 볼펜 사용자와 같은 요령으로 답안을 정정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사실 연필의 경우도 지우개로 지우기보다는 X표시를 하고 다른 답에 표시하는 쪽이 훨

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므로 이 질문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컴퓨터채점이 아니었으므로 이와같은 정정요령이 주어진 것이다. 막상 그러고 보니 굳이 연필로 답을 작성하라는 지시는 의미가 없는 것이 판명된 셈이다. (이것은 위의 시험의 Pretest 단계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점이였다.)

지금 인용한 일반지시문은 Listening Test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필답고사라면 이와 비슷한 형태이되 재조정된 지시문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지시문에 비해 각 문제유형별 directions는 짧긴 하지만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제 이 지시문에 관한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세부검토하여 보자.

3. 2. 1. Direction 은 영어로냐 한국어로냐?

영어시험에서 direction을 영어로 주었더니 수험자가 그 지시문의 의미를 몰라 답을 못쓰더라는 얘기는 가끔 듣는다. 혹자는 이런 경우, “영어로 된 direction 자체도 영어시험의 일부이므로 모른다면 학생의 잘못”이라고 돌려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시험범위에 영어 direction도 포함되는 걸까? 포함이 안된다면 일부 수험자가 시험외적인 요인으로 불이익을 받으므로 reliability와 validity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 영어 direction은 특히 stencil 원지로 문제를 등사할 때 typing의 편의 때문에 많이 주어지는데, 필자는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한국어로 direction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심지어 그 위의 수준에서도 쉬운 영어로 표현되지 않는 direction이라면 차라리 한국어로 줄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어로 지시를 할 때 어떤 語法을 쓰는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平語法인 “~을 쓰라”와 半敬語法인 “~을 쓰시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해라”體의 平語法보다는 “~하시오”體의 半敬語法을 쓰는 쪽이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험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수험자는 가쪽이나 긴장되어 있으므로 “~해라”體에 대해 심리적 위축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2. 2. Direction 과 그에 따른 문항수

이는 하나의 test 속에 몇가지 서로 다른 pattern을 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만약 50개 문항이 50개의 pattern 즉 50개의 지시문 아래주어진다면 지면차지는 물론이고, 수험자는 그 많은 문제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전 시험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수험자의 두뇌가 하나의 문제 pattern에 programmed 된 후에는 같은 pattern의 문제가 적어도 3~4개는 나와주어야 한다. 그

런 다음에 다른 pattern을 위한 지시문이 나오면 시간허비가 적을 것이다. TOEFL의 경우를 봐도 하나의 지시문 아래에 주어지는 (즉 동일 pattern의) 문항수가 대개는 15개, 많으면 30개까지 있다. 결국, 문항수가 많아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문제유형이 다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닌 셈이다. 보통의 학교시험이라면 하나의 지시문 아래 5~10개 정도의 문항이 주어지면 적절할 것 같다.

3. 2. 3. Direction 과 범위표시

하나의 지시문에는 그 지시문의 방법대로 풀어야 할 문제가 몇번 문제부터 몇번 문제까지인지를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예 1. Directions: *Questions 1-15 are incomplete sentences. Four words or phrases, marked (A), (B), (C), and (D), are given beneath each sentence. You are to choose the one word or phrase that...* (TOEFL 식임)

예 2. 문제 16-20.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의 기호를 답란에 쓰시오.

그 밖에도 지시문의 뒤에다 괄호를 하고, (16번-20번)과 같이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배점표시의 방법과 중복이 되므로 예 1이나 예 2의 방법처럼 지시문의 앞쪽에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3. 2. 4. Direction 과 배점표시

배점표시는 많은 학교시험과 일반시험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만약에 test가 20개문항, 25개문항, 40개문항, 혹은 50개문항 등의 100점 만점짜리 시험일때 각 문항의 비중이 모두 같다면 첫번째의 문제지시문 앞에 일반지시문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50개문항의 test라면, “각 문항의 배점은 2점으로 100점 만점임”이라든가, 더 간단히 “ $2\% \times 50 = 100\%$ ” 정도라도 표시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information을 주면 응시자가 초반부터 어려운 한두 문제에 매달려 시간낭비하는 실수는 피할 수 있다.

만약에 pattern 별로 비중이 다르다면 이 배점표시는 더욱 필요하다. 각 pattern의 지시문 다음에 ($2\% \times 5 = 10\%$) 혹은 ($5\% \times 5 = 25\%$) 등의 표시를 하면 응시자는 각 문제의 점수 비중에 상응한 시간배당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배점표시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2. 5. Direction 과 Example.

누구나 한 두번은 시험문제의 지시문을 잘 못 이해하여 엉뚱한 답을 썼거나, 혹은 (교사라면) 그런 답을 채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수험자가 지시문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영어로 지시문을 주기보다 한국어로 줄 것을 제의하였지만, 실령 한국어로 지시문을 주는 경우라도 문제 유형이 명백하게 쉬운 것이 아니라면 Example 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로 지시문을 줄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수험자는 때로는 영어 지시문을 이해를 못하여도 Example 은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수험자가 지시문을 잘 못 이해하여 엉뚱한 답을 썼을 때 단지 수험자의 무지만 탓할 수 있겠는가? 지시문의 목적은 수험자에게 문제의 형태와 수험자의 임무(task)를 분명하게 이해시켜 수험자가 문제자체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있다. (TOEFL 이나 GRE 등에 이 Example 의 자세한 예가 보인다.)

3. 2. 6. Direction 의 wording.

Direction 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은 direction 의 주변적인 것이었고,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지시문을 쓸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원칙적인 문제를 보기 위하여 Standardized test 의 하나인 TOEFL 의 예를 보자.

Direction: Questions 1-15 are incomplete sentences. Four words or phrases, marked (A), (B), (C), and (D), are given beneath each sentence. You are to choose the *one* word or phrase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 Then, on your answer sheet, find the number of the question and blacken the space that corresponds to the letter of the answer you have chosen so that letter inside the oval cannot be seen.

Example 1

Mr. Hood _____ in the state of Oregon.

- (A) although
- (B) and
- (C) is
- (D) which

Sample Answer

Ⓐ Ⓑ Ⓒ Ⓓ

In English, the sentence should read, "Mt. Hood is in the state of Oregon," Therefore, you should choose (C).

(1981년 11월 시행—문양수, 1983 : 475)

이 지시문은 Example 을 제외하고 볼 때 다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 (1) 문제들의 현 상태 설명 : Questions 1-15 are incomplete sentences.
Four words...given beneath each sentence.
- (2) 수험자의 임무 설명 : You are to choose...competes the sentence.
- (3) 구체적 답안작성 요령 설명 : Then, on your answer sheet, find...the oval cannot be seen.

실제 학교시험 등에서 이처럼 지시문의 비부분(Example 부분 포함)을 다 주는 경우는 드물다. 가장 혼란 것이 수험자의 임무만을 밝힌 지시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현상태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큰 불편이 없지만, 답안작성 요령이 빠지면 수험자를 당혹케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지시문들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자. (여기서는 영어지시문을 다루겠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어진 지시문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어만을 다루기로 한다.)

(4) Fill in the blank with a suitable word.

a. 만약에 답안지가 따로 없고, 문항도 multiple-choice 식이 아니고 blank 만 주어졌다면 이 지시문은 성립한다. (시험지에다 단어를 바로 써 넣으면 되니까.)

b. 만약에 multiple-choice 식의 문항은 아니더라도, 답안지가 따로 주어졌다면 이 지시문은 답안작성 요령을 추가해야 한다. (예 : Write, on your answer sheet, a word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³⁾

c. 문항은 multiple-choice 식이고 답안지는 따로 없다면 위의 지시문은 예를 들면, "Choose the word that best fits in the blank and then write the word in the blank."라든지 "Choose the word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 and then circle the letter of your choice." 등과 같이 고쳐야 한다.

d. 문항도 multiple-choice 식이고 답안지도 따로 주어졌다면 (4)의 지시문은 더욱 적절치 못하다. 이 경우라면 지시문은, 위의 c 항에 있는 "...then write the word in the blank"를 "...then write the word on your answer sheet"로, 그리고 "...then-circle the letter of your choice"를 "...then write the letter (A.B.C.D) of your choice on the answer sheet" 등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5) Choose the one that best fits in the blank.

이것도 choose 한 다음의 답안작성 요령이 없다. 답안지가 따로 없다면 (4)의 C항과 같이 고쳐야 하고 답안지가 따로 있다면 (4)의 d항처럼 고쳐야 한다. 특히 choice 의 단어 (혹은 구)를 그대로 쓰라는 경우 보다는 기호(A.B.C.

D)를 쓰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6) Correct errors, if any.

이러한 지시문이 수험자를 당혹시키는 이유도 답안작성 요령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전체문장을 완전히 다시 쓰라는 말인지, A→B 식으로 틀린 부분과 고친 부분을 함께 표시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고친 답만 쓰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위의 예문 외에도 답안작성 요령이 없는 지시문들을 충남대학교 교양영어의 workbook에서 몇개 플라보았다. 물론 workbook의 지시문이긴 하지만 시험에도 이와 같은 지시문들이 많이 나온다.

(7) Select the letter of the definition that best give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 (p. 25)

(8) Give the adjective forms of the following words. (p. 31)

(9)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given words or phrases. (p. 41)

(10) Change the form of the given word in the brackets to match the sentence. (p. 49)

(11) Put the underlined parts into Korean. (p. 72)

Direction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Direction은 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고 분명하게 주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다. 다음에는 test의 핵심인 test item 작성에 관해 살펴보자.

3.3. Test Item 만들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관식 문제는 Free composition이나 번역문제정도가므로 여기서는 객관식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multiple-choice 형의 문항만들기의 기술적 고려 사항을 고찰하려 한다.

3.3.1. Format.

Multiple choice item의 일반적인 format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stem 아래 option들이 따로 주어지는 형태

예 : He accused me of...lies.

A. speaking B. saying C. telling D. talking (Heaton 1975: 17)

(2) option들이 stem 안에 삽입되는 형태

예 : He came (A. on B. at, C. in, D. until) six o'clock.

(3) option 들이 따로 없고 stem 자체가 option 을 마련하는 형태

예 1. 잘못된 부분 찾기

My car had broken down, so I went there by foot. (Heaton 1975 : 31)

예 2. 잘못된 부분 찾기

Tony's ^Afather/^Bwould not let him/^Cto stay out/^Dlate at night. (Heaton 1975 : 32)

(1)과 같은 형태는 option 이 비교적 길거나,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하고, (2)의 형태는 전치사문제 등과 같이 비교적 짧은 option 일 때 적절하다. (3)의 형태는 문법의 test 와 few/a few, little/a little, some/any, much/many, this/that 등과 같이 대응되는 단어들의 용법, 그리고 관사와 같이 4 options 를 주기 곤란한 test 에 좋다(Madsen 1979).

(4) One of the girls lost her wallet and doesn't have some money for the game.

(5) I visited ^ANetherlands/^Bfor a week last year/^Cwhile/^Dyou were in school.

(4)에서는 some/any 의 식별이 test 되고 (5)에서는 the Netherlands 의 the 가 test 되고 있다.

3.3.2. Stem.

Heaton (1975 : 16)은 stem 의 목적은 문제를 명확하고 간결히 제시하는 것이고, 수험자를 오도하는 불필요한 cue 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또 stem 의 형태로 (a) incomplete statement (예 : He accused me of...lies), (b) complete statement Everything he wanted was to hand), (c) question According to the writer, what did Tom immediately do?) (p. 17)등을 들고 있다.

이제 stem 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살펴보자.

(가) Blank (_____)냐, parentheses (())냐, dots(...)냐, dots(...)냐?
Stem 이 incomplete statement 일 때 그 incomplete 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겠는가?

다음의 예를 보자.

- (6) Robert _____ in Kenya a few weeks ago.
- (7) Robert () in Kenya a few weeks ago.
- (8) Robert...in Kenya a few weeks ago.

Options: A. is arriving B. arrives C. has arrived D. arrived

여기서, (8)의 dots(...)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6)이나 (7)은 blank space 나 parentheses 의 size 에 의해서 수험자가 불필요한 추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출제자가, 직접 typing 할 경우, 출제자 자신도 은연중 정답의 길이와 비슷하게 space 를 마련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8)처럼 3개의 점으로 (문장의 끝에서는 4개의 점) 표시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다.⁴⁾ (그런데 만약 답안지가 따로 없다면 이 stem 의 앞이나 뒤에 기호를 쓸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답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있다.)

(나) option 에서 되풀이 되는 부분은 stem 으로 올릴 것 (Heaton 1975 : 17). 다음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라.

(Weak)	(Revised)
(9 a). I enjoy...the children playing in the park.	(9 b). I enjoy looking...the children playing in the park.
A. looking to	A. to
B. looking about	B. aboutt
C. looking at	C. at
D. looking on	D. on

왼쪽에 *looking* 은 option 에서 되풀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혼란시키고 또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다) stem 이 option 의 일부를 표면적으로 제한하도록 쓰지 말것. 다음의 예를 보라.

4) Dots 를 쓰면 direction 의 wroding 도 *blank parentheses* 등의 단어는 빠지고, "Choose the word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 등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 | (Weak) | (Revised) |
|--|--|
| (10 a). Someone who designs houses is an...
A. designer
B. builder
C. architect
D. plumber | (10 b). Someone who designs houses is...
A. a designer
B. a builder
C. an architect
D. a plumber |
| (11 a). They just bought...furniture.
A. a few
B. several
C. some
D. a | (11 b). They just bought...
A. a few furnitures
B. several furnitures
C. some furniture
D. a furniture |

(10 a)는 vocabulary test 이지만 *an* 이 stem 에 있으므로 이미 답을 제한하고 있고, (11 a)는 count/noncount noun 에 대한 test 인데 *furniture* 라는 단수 형이 이미 A와 B의 선택에 표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10 b)와 (11 b)는 이런 문제를 해소한 형태들이다.

(라) Stem 은 가급적 negative statement 를 피할 것. 다음의 예를 보라.

- (12 a).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true to the passage?
(13 a). The word that does not fit to describe Tom's character is...

이와 같은 negative stem 은 수험자를 오도하기 쉽다. 즉 수험자는 심리적으로 “맞는 것” 혹은 “the most suitable word” 등에 programmed 되어 있기 때문에, negative stem 을 읽고도 무의식중에 positive stem 으로 착각하고, 답을 반대로 고를 경우가 있다. 그래서 (12 a)와 (13 a)은 각각 (12 b)와 (13 b)처럼 고치고 option 들도 그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

- (12 b).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to the passage?
(13 b) The word that best describes Tom's character is...

이와 같이 negative statement 는 stem 뿐만 아니라 direction 에서도 피해야 한다고 본다.

3.3.3. Options.

Option 들 (選擇枝)에는 정답인 key 와 오답인 distractor 들이 있다. 훌륭한 문항은 distractor 들이 좋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option 들에 관계된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 ABCD 나, abcd 나, 가나다라냐?

먼저 option 들에 붙이는 기호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점이다. 만약에 답란이 컴퓨터채점을 위해 해당란을 검게 칠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수험자가 답란에 기호를 쓰는 경우에는 ABCD 식이 좋다. 왜냐하면 지능적인 수험자중에는 “a”의 위쪽 꼬리를 길게 하여 “a”인지 “d”인지 애매하게 만들어 양쪽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나”와 “다”도 그 중간형태로 그려넣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기호를 ABCD 로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TOEFL 이나 GRE 는 검게 칠하는 답안지인데도 ABCD 를 쓴다.)

(나) Option 들의 길이는 비슷할 것 (Harris, 1969; Heaton, 1975)

Option 들 중 하나가 특별히 길거나 짧으면 그것이 수상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 수험자의 심리적 경향이다. Option 들이 모두, 혹은 적어도 불칙은 비슷한 길이로 주어져야 불필요한 추측을 막는다. 다음의 예를 보라.

(14) to think deeply about

- A. vex
- B. poll
- C. tug
- D. contemplate (Harris, 1969 : 56)

(15) He began to *choke* while he was eating the fish.

- A. die
- B. cough and vomit
- C. be unable to breathe because of something in the windpipe.
- D. grow very angry. (Heaton, 1975 : 18)

(다) Distractor 들도 그럴듯 하게 주어져 distract 할 수 있도록 할 것. (Heaton, 1975 : 19)

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라(Harris, 1969 : 56).

(20) very evil

A. nefarious

B. delicious

C. prosperous

D. courageous

여기서 *nefarious* 의 뜻을 몰라도 수험자는 나머지 셋의 뜻을 알아서 정답에 도달하므로 distractor 의 의미가 없다.

반대로 key 가 distractor 보다 쉬우면 오히려 우수한 수험자가 함정이라고 생각하여 key 아닌 것을 고르게 된다(Heaton, 1975 : 19)

다음의 예를 보라.

(21) You need a...to enter that military airfield.

A. permutation

B. perdition

C. permit

D. perspicuity

여기서 우수한 수험자는 *permit* 는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다른 어려운 단어에 보다 알맞는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바). 정답의 배치는 균등하게 무작위로 할 것(Harris, 1969 : 108 ; Heaton, 1975 : 20).

예를 들어 4선지형 40문제의 시험이라면 A·B·C·D에 각각 정답이 10개씩 돌아가야 하고, 그 순서는 완전히 random 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가지 좋은 방법은 (필자의 경험인데) A가 key 인 문항 10개, B가 key 인 문항 10개...라는 식으로 각각 작은 카드에 문제를 만든 다음 이것들을 한데 모아 카드게임때처럼 한참 섞은 후에 카드가 나오는 대로 문제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만들면 대개 B와 C에 정답이 몰리는 경우가 있다.

IV. 結 論

훌륭한 英語考査를 만들기 위하여는 그 考査의 내용을 알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그 시험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本稿에서 좋은 英語考査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그 일반원칙의 현실 적용에서부터 문항작성의 제반 기술적 요소까지 검토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원칙의 검토과정에서 필자는 Reliability 와 Validity 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다 많은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pretesting 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작성의 기술적인 고려사항으로는 test organization, direction 쓰기, test item 만들기에 관해 실제로 당면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수험자의 편의를 위한 편성과, 상세한 지시문을 줄 것, 문항작성을 논리적으로 할 것등을 제의하였다.

물론 이 논문이 좋은 영어교사를 위한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적인 면과 아울러 기술적인 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Bibliography

- Brown, H. Douglas.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rris, David P. (1969) *Tes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an Francisco: McGraw-Hill Book Company.
- _____ (1972) "Constructing the Test," in *Readings o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Kenneth Croft. Cambridge, Mass.: Winthrop Publishers, Inc., 325-340.
- Heaton, J.B. (1975) *Writing English Language Tests*. London: Longman.
- Madsen, Harold S. (1975) Lecture Notes.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Unpublished.
- Valette, Rebeca M. (1977) *Modern Language Testing*, 2nd ed. San Francisco: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金德起(1980) "大學入試英語의 檢討"『영어교육』 제19호 39—52.
- 문양수 편저 (1983) *Analytical TOEFL* 서울: 무역경영사.
- 朴義載. (1981) 『英語學習指導의 理論과 實際』. 서울: 학문사.
- 신성철, 황봉주, 권오량. (1983) 『제1회 충청남도내 고등학생 영어청취 경시문제』 충남대학교 부설 언어훈련원.
- 申鎔鎭. (1981) 『英語教授 學習理論과 實際』. 서울: 翰信出版社.
- 田相範. (1978) "豫備考査(英語)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영어교육』 제15호, 103—111.
- 忠南大 英文學科研究室. (1982) *Comprehensive English (Workbook)*. 대전: 창학사.

〈Abstract〉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a Good English Test

Oryang Kw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writing a good English test many things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mong them are techn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external aspects of a test, such as length, format, shape, wording, and printing.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ts to discuss these matters in the light of the English-test writers of Korea.

For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such as reliability, validity, practicality, and so on, the writer suggested that a test contain a larger number of test items compared to present tests written by most Korean test writers, which usually have 25 to 35 items.

The discussions that followed concerned the format of a good tes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rdering the test items and of the placement of them in a reasonable way on test papers. Then the writer asserted that the directions of the test should be given in Korean in the beginning and intermediate stages...until the earlier years of high school. Also, the writer advised that the directions should be as clear as possible and that an example be given whenever possible. Furthermore, the writer criticized some of the commonly used directions with a view to illustrating his points.

For a better item writing, the writer pointed out some of the common errors committed by many item writers and presented several suggestions for writing good test items with good distractors.

In conclusion, the writer expressed his hope that further explorations will be conducted in this area of test writing.